

2009 대수능 9월 모의평가 제2외국어/한문영역 한문과목 해설지

[정답]

문 항	1	2	3	4	5	6	7	8	9	10
정 답	④	⑤	②	⑤	④	②	①	④	①	①
문 항	11	12	13	14	15	16	17	18	19	20
정 답	③	④	③	②	①	②	③	②	①	⑤
문 항	21	22	23	24	25	26	27	28	29	30
정 답	③	③	④	①	④	⑤	②	④	⑤	②

[해설]

1. [정 답] ④

[해 설] 제시한 그림(깃발)의 모습과 관련된 한자를 찾는 문제이다.

①刀(도)칼 ②戶(호)지게 ③矢(시)화살 ④旗(기)깃발 ⑤劍(검)칼

2. [정 답] ⑤

[해 설] 한자의 독음

ㄱ. 掌(장)손바닥 ㄴ. 當(당)당하다 ㄷ. 裳(상)치마 ㄹ. 嘗(상)맛보다

3. [정 답] ②

[해 설] 부수와 총획이 바르게 제시된 한자 찾기

①臨(림)-臣,17획 ②財(재)-貝,10획 ③無(무)-火,12획 ④苟(구)-艸,9획 ⑤得(득)-彳,11획

4. [정 답] ⑤

[해 설] 부수로 쓰일 때 모양이 변하는 한자의 독음을 묻는 문제이다.

①人+山=仙(선) ②犬+王=狂(광) ③手+支=技(기) ④心+每=悔(회) ⑤水+齊=濟(제)

5. [정 답] ④

[해 설] 퍼즐안에 들어갈 공통의 한자를 찾는 문항이다.

國泰民安(국태민안) :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함

與民同樂(여민동락) :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김

6. [정 답] ②

[해 설] 그림 속의 안내판에 알맞은 한자어 찾기. 한자어의 뜻을 알고 일상생활에 활용하는 문항이다.

①共販場(공판장) ②乘車場(승차장) ③野營場(야영장) ④運動場(운동장) ⑤講演場(강연장)

7. [정 답] ①

[해 설] 제시된 한자로 만들 수 있는 성어의 뜻 찾기

①몹시 애태우며 간절히 기다림-鶴首苦待(학수고대)

②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함-徹頭徹尾(철두철미)

③야단스럽게 시작하여 흐지부지 끝남-龍頭蛇尾(용두사미)

④여러 평범한 사람 속에 뛰어난 한 사람-群鷄一鶴(군계일학)

⑤겉보기는 그럴듯하나 속은 변변치 못함-羊頭狗肉(양두구육)

8. [정 답] ④

[해 설] 그림의 내용으로 사자성어 유추하기

전철에서 힘든 노인을 외면하는 젊은이들의 뻔뻔스러운 모습

①伯牙絕絃(백아절현) :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함

②見危授命(견위수명) :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침

③指鹿爲馬(지록위마) :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

④厚顏無恥(후안무치) : 뻔뻔스러워 부끄러움이 없음

⑤畫蛇添足(화사첨족) : 안해도 될 일을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쓸데없는 일을 하여 도리어 실패함

9. [정 답] ①

[해 설] 제시된 그림과 설명에 알맞은 절기를 찾는 문항이다.

①七夕(칠석) ②立春(입춘) ③冬至(동지) ④白露(백로) ⑤初伏(초복)

*初伏(초복) : 삼복의 첫째 복으로 여름의 시초를 말한다. 하지 이후 제3경(庚)일을 초복이라 하는데, 대략 7월 11일부터 7월 19일 사이에 온다. 이 시기는 소서(小暑)와 대서(大暑) 사이가 되므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오는 시기이다.

10. [정 답] ①

[해 설] 제시된 사자성어의 빈 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한자 찾기

大器晚成(대기만성) :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함

殺身成仁(살신성인) :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옳은 도리를 행함

語不成說(어불성설) : 말은 했지만 말의 앞뒤가 맞지 않음

11. [정 답] ③

[해 설] 대화의 내용에 알맞은 사자성어 찾기

①一罰百戒(일벌백계) : 한 사람을 벌(罰)줌으로써 여러 사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

②風前燈火(풍전등화) : 매우 위태로운 형세

③事必歸正(사필귀정) :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반드시 정리(正理)로 돌아감

④雪上加霜(설상가상) :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

⑤緣木求魚(연목구어) :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아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 함

12. [정 답] ④

[해 설] 밑줄 친 가사를 보고 빈 칸의 한자어를 유추하기

①休憩所(휴게소) 檢問所(검문소) ②國境線(국경선) 水平線(수평선)

③三角山(삼각산) 八公山(팔공산) ④日出峯(일출봉) 月出峯(월출봉)

⑤遊園地(유원지) 耕作地(경작지)

13. [정 답] ③

[해 설] 제시된 글의 내용과 관련된 단문 찾기

①言出難更收 : 말은 나오면 다시 거두기가 어렵다

②水至清則無魚 :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없다

③人依善惡之友 : 사람은 착하고 악한 친구를 사귀는 데에 달려있다

④勤爲無價之寶 : 부지런함은 값어치를 정할 수 없는 보배이다

⑤好憎人者, 亦爲人所憎 : 남을 미워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또한 남에게 미움을 받는다

14. [정 답] ②

[해 설] 문맥에 알맞은 한자 유추하기

해석 : 눈은 스스로를 보기에 부족하다. 그래서 거울로 얼굴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

* 참고 : 知短於自知, 故以道正己 : 지혜가 스스로를 제대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도(道)로써 자기 몸을 바로잡아 나가는 것이다

15. [정 답] ①

[해 설] 대(對)를 활용하여 빠진 글자 유추하기

해석 : 덕이 재주보다 나은 자를 군자라 하고, 재주가 덕보다 나은 자를 소인이라 한다

16. [정 답] ②

[해 설] 주어진 동사의 행동 주체를 찾는 문항

해석 :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물었더니, “스승은 약초를 캐러 가셨습니다.

단지 이 산 속에 계실텐데, 구름이 깊어 계신 곳을 모르겠습니다.”

㉠-시적화자 ㉡-동자 ㉢-師 ㉣-師 ㉤-동자

<17~18번 전문 해석>

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으니, 사람은 착하지 아니함이 없고, 물은 아래로 내려가지 아니함이 없다

17. [정 답] ③

[해 설] 문장의 빈 칸에 문맥이 통하는 한자 유추하기

18. [정 답] ②

[해 설] 해석순서

사람은(人) 착하지(善) 아니함이(不) 없고(有無)

<19~20번 전문 해석>

왕연이 어버이를 섬김에 온화하고 즐거운 안색으로 봉양했는데 여름에는 베개와 자리에 부채질을 하였고 겨울에는 몸으로 이불을 따뜻하게 하였으며 한겨울 한창 추울 적에 자신은 몸에 늘 온전한 옷도 없었으나 부모님께는 맛있는 음식으로 극진하게 모셨다.

19. [정 답] ①

[해 설] 어구 풀이

① ㉠: 두려운 기색 ⇒ 온화하고 즐거운 안색

20. [정 답] ⑤

[해 설] 글의 주제와 관련된 단문 찾기

① 己所不欲, 勿施於人 :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

- ② 欲勝人者, 必先自勝 : 남을 이기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이겨야 한다
 ③ 讀書千遍, 其義自見 : 책을 천 번을 두루 읽으면, 그 뜻이 저절로 나타난다
 ④ 忍一時之憤, 免百日之憂 :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 날의 근심을 면한다
 ⑤ 古人一日養, 不以三公換 : 옛사람은 하루의 부모님 봉양을 삼공의 직위와도 바꾸지 않았다

21. [정 답] ③

[해 설] 문장 속의 지시대명사가 가리키는 바를 그림으로 찾기

해석 : 늙은이는 가는 글씨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이것을 눈에 쓰면 밝아진다

<22~23번 전문 해석>

부모의 은혜는 하늘이 끝이 없는 것과 같아서 만약 살아계실 때 섬기다가 돌아가서서는 마침내 잊어버린다면 어찌 효자의 마음이겠는가?

22. [정 답] ③

[해 설] 글의 내용은 제례에 관련된 것이다.

- ① 冠禮(관례) ② 婚禮(혼례) ③ 祭禮(제례) ④ 朝禮(조례) ⑤ 賀禮(하례)

23. [정 답] ④

[해 설] 문장에서의 한자의 뜻

- * 如(여) 1. 같다 2. 만약
 * 若(약) 1. 같다 2. 만약 3. 2인칭대명사

<24~25번 전문 해석>

興仁門外無名巷(흥인문외무명항) 흥인문 밖 이름 없는 골목에
 一帶沙川五柳斜(일대사천오류사) 한 줄기 모래 깔린 시내에 다섯 그루 버드나무 빳겼네.
 牆北牆南花下路(장북장남화하로) 담장 북쪽 담장 남쪽 꽃 아래 길에
 前三後七是吾家(전삼후칠시오가) 앞에서 세 번째 뒤에서 일곱 번째가 내 집이라오.

24. [정 답] ①

[해 설] 시의 내용 이해

- * 시적화자는 정인(情人)과 이별하며 자기 집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다.

25. [정 답] ④

[해 설] 한시의 종합감상

ㄱ. 형식은 칠언율시이다. ⇒ 칠언절구

ㄴ. 운자는 ‘斜’와 ‘家’이다. ⇒ 칠언절구인데도 1구에 압운하지 않음

ㄷ. 제2구와 제3구가 대우를 이룬다. ⇒ 대우가 없음

ㄹ. 시인의 정감이 직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. ⇒ 이별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음

<26~27번 전문 해석>

이에 제상을 가두고 물었다. “너는 어찌하여 너희 나라 왕자를 몰래 보냈느냐?” 대답하여 말하였다. “나는 계림의 신하이지 왜국의 신하가 아니다. 지금 우리 임금의 뜻을 이루고자 할 뿐이니, 어찌 감히 그대에게 말하겠는가?” 왜왕이 화내며 말하였다. “지금 너는 이미 내 신하가 되었거늘 계림의 신하라고 말하니, 반드시 다섯 형벌을 내리겠다. 만약 왜국의 신하라고 말한다면, 반드시 무거운 상을 내리리라.” 대답하여 말하였다. “차라리 계림의 개, 돼지가 될지언정, 왜국의 신하는 되지 않게다.

26. [정 답] ⑤

[해 설] 주인공의 행동을 적절하게 나타낸 문장 찾기

주인공 박제상의 충정과 절개가 잘 나타나 있다.

- ① 無道人之短 :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라
- ② 隨友適江南 :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
- ③ 騎馬欲率奴 : 말을 타면 종(건마잡이)를 부리고 싶다
- ④ 愼是護身之符 : 삼감은 몸을 지키는 부적이다
- ⑤ 忠臣不事二君 :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

27. [정 답] ②

[해 설] 문장의 형식 - 반어형

㉠何敢言於君乎 : 어찌 감히 그대에게 말하겠는가? (반어형)

- ① 施恩, 勿求報 : 은혜를 베풀고 보답을 구하지 말라 (금지형)
- ② 割鷄, 焉用牛刀 :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오 (반어형)
- ③ 窮理, 莫先於讀書 :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글을 읽는 것보다 앞선 것이 없다 (비교형)
- ④ 農者, 天下之大本也 : 농사는 천하의 큰 근본이다 (평서형)
- ⑤ 直不百步耳, 是亦走也 : 다만 백보가 못될 뿐이지 이 또한 달아난 것이다 (한정형)

<28~30번 전문 해석>

이항복이 재상의 지위에 있을 때 벼슬이 높은 관리가 와서 뵈어도 모두 앉아서 절을 받았다. 하루는 신훈도가 문 앞에 있다 알리니 공께서 맨발로 걸어나가 맞아들여 당상에 오르게 하고, 머리 숙여 말씀하는 것을 받아들이며, 응대함이 매우 공손하였다. 집안사람이 이상히 여겨 까닭을 물으니 이는 공이 어렸을 적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였다. 이튿날 공께서 숙소에 가 사례하여 면포 십 여단과 쌀 몇 섬을 보내어 이로써 여비에 쓰시라 바치니, 그 사람이 말하기를 "붓

짐 진 나그네가 필요한 것이야 몇 말의 쌀이면 족하오"

* 달관(達官): 벼슬, 지위가 높은 관리

* 행탁(行橐): 여행용 전대, 봇짐

28. [정답] ④

[해설] 한자어의 짜임

㉠達官: 현달한 관리 - 수식

㉡受拜: 절을 받다 - 술목

㉢在門: 문에 있다 - 술보

㉣升堂: 당상에 오르다 - 술보

㉤家人: 집안의 사람 - 수식

㉥受業: 학업(가르침)을 받다 - 술목

29. [정답] ⑤

[해설] 한자어의 독음

應對(응대)

30. [정답] ②

[해설] 글의 내용 이해

이항복이 다음날 아침 객관으로 가서 사례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신흔도는 객관에서 잔 것이다